

# 첨단 바이오 산업도시 도약 탄력

## 남원시 바이오산업 연구원, 그린 바이오소재 산업화 기술개발사업 최종 선정

남원시가 곤충과 미생물을 융합한 첨단 바이오 기술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에 본격적인 속도를 낸다.

남원시 바이오산업 연구원(원장 이영철, 이하 연구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6년 첨단 바이오 기술 기반 주요 연계형 그린 바이오소재 산업화 기술 개발 사업에 최종 선정되며 3년간 총 11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업의 핵심은 곤충과 미생물을 활용한 '유용 성분 발굴 및 소재화'에 있으나, 단순 사육을 넘어 첨단 바이오 전주기 '소재 발굴-공정 개발-제품화-상용화 단계'를 통한 자원함으로써, 그동안 곤충 기업들이 겪어온 현장 애로 기술을 해결하는 것이 목표다.

연차별 로드맵에 따르면 1차 연도에 기호도 증진 기술을 체계화하고, 2차 연도에는 기능성 강화 기술을 확립해 나간다. 마지막 3차 연도에는 본격적인 제품화에 나섬으로써 즉시 활용이 가능한 실질적인 기술 성과를 도출할



남원 곤충산업기공센터 조감도.

계획이다.

특히 오는 2027년 말 완공 예정인 '곤충산업 거점 단지'를 중심으로 기업 수요 맞춤형 R & D(사업화 연계 기술 개발)을 발굴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곤충 소재를 단순 식용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기능성 식품 및 의약품 분야까지 확장한다는 중장기 전략을 세웠다.

이번 공모 선정은 남원 시에 일반산업단지가 '기회 발전 특구'로 지정된 것과 맞물려 시너지가 극대화될 전망

으로, 특구 입주 기업은 법인세·재산세·취득세 감면, 보조금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등의 파격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시가 거점 단지를 통해 구축할 '맞춤형·표준화 곤충 원료 공급 체계'는 원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바이오 기업에 강력한 유인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으로서의 세계 혜택과 안정적인 원료 공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시행

## 임실군, 오늘부터 소속 직원 대상 훌짜제 의무 실시

임실군이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자원안보 위기경보 '경계' 단계 발령에 맞춰, 8일부터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강도를 높이기 위한 '승용차 2부제(훌짜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해 온 '승용차 5부제'를 한층 강화한 것으로, 임실군청 본청을 비롯해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 관내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임실군 소속 전 직원의 승용차와 공용차는 훌짜일에 맞춰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훌짜 날에는 번호 끝자리가 홀수(1, 3, 5, 7, 9)인 차량이, 짝수 날에는 끝자리가 짝수(2, 4, 6, 8, 0)인 차량만이 운행 가능하다.

군청 및 소속 기관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주차장 운영의 취지를 살려 '승용차 5부제'를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민원인 차량은 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1·6번), 화요일(2·7번), 수요일(3·8번), 목요일(4·9번), 금요일(5·0번) 등 해당 요일에 맞춰 청사 진입이 제한된다.

특히 에너지 위기 '경계' 단계 발령 시 유류 공영주차장은 '승용차 5부제'



의무 적용 대상이나, 임실군은 관내에 유류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이 없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군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5부제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장애인·임산부·영유아 동승 차량을 비롯해 소방·구급·경찰 등 긴급 임무수행 차량은 이번 부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 차량 또한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 정책에 따라 제한 없이 운행 및 청사 출입이 가능하다.

또한, 군은 2부제 시행에 따른 공직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연 근무제와 재택근무를 적극 권장하고, 불요불급한 출장 자제 및 화상회의 활용 등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병행한다. /임실=진홍영 기자

## 지역 소식통

### 순창군,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순창군은 2025년 12월에 사업 연도가 끝난 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징집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우리 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다.

신고는 지방세 온라인 시스템인 위택스(Wetax)를 통해 전자 신고할 수 있으며, 순창군청 재무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달리 사업장이 있는 지자체마다 각각 신고해야 하므로, 사업장이 여러 곳인 법인은 안분계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올해는 기업의 자금 흐름을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정 지원 제도가 시행된다. 먼저,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 세정 지원 대상 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납부 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 3개월 자동 연장된다. 다만, 납부 기한이 연장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순창=이양원 기자

### 남원소방서, 17일까지 화재안전조사 실시

남원소방서는 최근 발생한 대전 공장 화재와 관련, 다수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고위험 사업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17일까지 자동차 부품 공장 등 화재안전조사(합동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관내 자동차 부품 및 철강재 제조업체 등이며,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남원 화재안전조사단을 필두로 한국전기안전공사, 고용노동부, 남원시 건축부서 등 유관기관이 합동조사반을 구성, 조사 내용은 △소방시설 유지관리 적정성, 피난시설 폐쇄·잠금 행위 및 복도 등 장애물 적치 여부 확인 △무허가 위험물 사용 여부 및 저장·취급 기준 준수 여부 정밀 확인 △건축물 불법 증축 및 용도 변경(남원시), 전기설비 안전관리(전기안전공사), 작업자 화재예방 교육 및 안전보건관리 체계(고용노동부) 등 분야별 점검 등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 임실군, 명품 과수산업 육성 박차

## '과수 실증시험포' 조성 완료

임실군이 지역 특화 작목인 복숭아와 사과 경쟁력 강화와 노동력 문제 해결을 위해 미래형 과수 실증시험포 조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실증 운영에 돌입했다.

군은 지난 1년간 총 1억9,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신품종과 최신 재배 기술의 지역 적응성을 현장에서 정밀 검증하는 '과수 실증시험포'를 구축하고, 임실 과수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섰다.



과수 실증시험포는 새롭게 개발된 품종과 재배기술을 농가에 보급하기에 앞서, 실제 재배 환경과 동일한 조건에서 성능과 지역 적응성을 검증하는 '현장 맞춤형 연구 과원'이다.

단순 시험재배를 넘어, 현장 적용과

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농가 확산을 목표로 한다.

이번 실증시험포는 특히, 최근 과수산업의 핵심트렌드인 '평면화·집약화 수형'을 대거 도입해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구현하는 미래형 과원 모델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품종 구성도 내실있게 갖췄다. 복숭아 12종(마투황도 등 국내 육성 7종 포함)과 사과 5종(골든블 등 국내 육성 3종 포함)을 식재해 지역 적응성 검증에 들어갔으며, 이 가운데 국내 육성 품종 비중을 확대해 국산 품종 경쟁력 확보에도 힘을 실었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 남원시, '춘향제' 무료 임시 차박지 사전 예약 접수

남원시가 오는 30일 개막하는 '제6회 춘향제'를 앞두고, 차박 여행객의 편의를 위해 임시 차박 공간을 무료로 개방하고 사전 예약을 접수한다.

차박지는 종합스포츠타운 내 축구장과 축구장 주차장, 합마루 소리체험관 주차장 등 총 3개소로, 캠핑카와 일반 승용차 등 총 220여 대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으며, 뛰어난 접근성과 주변 경관을 두루 갖추고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부터 전문 캠핑족까지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공간은 주차장을 임시 활용하

는 만큼 별도의 취사 시설은 제공되지 않지만, 시는 방문객의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합스포츠타운 내 샤워 시설을 운영하고, 기존 화장실을 상시 개방하는 등 위생 환경 유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며, 한정된 공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이용권은 1인 1사이드로 제한된다.

사전 예약은 4월 24일 오후 6시까지 춘향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예약 정원이 미달할 경우 축제 기간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시보건소, 청소년 흡연 예방 '스마트 퀴즈쇼' 운영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는 오는 6월 8일까지 관내 초·중·고등학교 17개교 학생 및 교사 2,400여 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흡연 예방을 위한 '스마트 퀴즈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최신 자료를 바탕으로 담배의 유해성을 정확히 알려 학생들의 금연 의식을 높이고, 건강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교육은 학교별 강당이나 체육관을 직접 방문해 1회 이상 총 17회에 걸쳐 진행, 특히 기존의 일반형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1인당 1개의 블루투스 리모컨을 배부해 실시간으로 문제를 풀어 참여하는 '스마트 퀴즈쇼' 형식을 도입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은 금연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능동적인 체험형 교육을 경험하게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 순창군,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대응체계 가동

순창군이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대응체계에 돌입한다.

군은 재난 발생에 대비해 24시간 재난상황실 운영과 단계별 비상근무체계를 구축하고, 부군수 중심 총괄관리 체계를 통해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세월호, 급경사지, 저수지, 산사태 우려지역 등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인명피해 우려지역 46개소에 대한 주민대피계획을 수립하는 등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이와 함께 순창경찰서, 순창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 중심의 통합 대응체계를 운영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한 구조·복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항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